

## 뮌헨大學의 特性

許 昌 雲  
(서울大 獨文學科 教授)

### I. 序

나의 학문적 요람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양식」의 젓줄이 되어 주고 있는 高等教育的 원천을 일궈어 보라던 나는 역시 서슴지 않고 내가 유학하였던 서독의 뮌헨大學을 내세울 것이다. 무릇 선진국의 대학치고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 어디엔들 있겠으며, 또 저마다 자랑할 만한 特殊性을 열거하라는 요청에 입혀서는 저명한 대학교수들과 우수한 학생들, 완벽한 교육시설과 재정적으로 풍부한 研究支援, 유구한 역사 속에 다져진 傳統,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와 教授 등 대학이 대학다운 본분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반 여건을 지칭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주장은 달리 없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所與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현실과 미래에 부합되는 값진 研究成果들을 올리고 있다는 찬사밖에 별다른 叙述이 있을 성싶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의 서술에서 상기한 사항들과 관계되는 몇 가지 範圍의 구체적 데이터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격동적으로 체험하였고 그리고 '70년대

후반과 '80년대 벽두에 또 다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몇 가지 類型의 사회적·역사적 변화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루드비히·막시밀리언즈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항칭 뮌헨대학)과 이 대학의 생리가 표출하고 있는 知名度를 증언해 볼까 한다.

### II. 대학의 規模와 沿革

전통적으로 대학의 별명으로 통용되고 있는 「알마 마터」(Alma Mater)란 라틴어의 뜻은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란 의미이다. 이미 퇴색해 버리고 만 「상아탑」(Elfenbeinturm)이란 별칭에 비해서 「알마 마터」는 現代的 의미에서도 음미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이름으로서 뮌헨의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도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원래 이 대학은 1472년에 뮌헨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잉골슈타트(Ingolstadt)라는 小都市에서 설립되었으나, 그 뒤 1800년에는 란쯔후트(Lands-hut)로 옮겨 왔다가 다시금 1826년에 현재 바이에른(Bayern) 주의 首都인 뮌헨으로 옮겨와서 지금은 지하철로 바로 강의실에 이를 수가 있는 대학으로 현대화한 「알마 마터」임을 아무도 부인 않는다. 서독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긴 이름의 고유한 명칭들은 그 대학의

연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歴史的 배경에서 비롯한다.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의 경우엔 그 설립자가 Ludwig 대공이었는데 그 후 전쟁통에 대학을 Landshut로 옮겼던 Maximilian I세(나중에 왕이 되었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현재의 뮌헨에는 역시 종합대학인 뮌헨工科大學(Technische Universität)과 나란히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가 공존하고 있으나, 뮌헨공대는 그 대학의 실용적, 기술공학적 特殊性 때문인지 몰라도 아카데미한 지명도에 있어서는 역시 뮌헨대학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뮌헨의 대학하면 으레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를 연상하기에 이른다. 이 대학은 현재 서독에서는 학생수로 보아서 베를린大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두번째의 대학이 되었는데, 1983년도 여름학기 등록학생수는 47,391명(이 중 여학생은 22,802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3,000명을 상회하는 外國學生들도 포함된다(이처럼 많은 외국 유학생들의 쇄도는 서독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등록금과 입학금을 무료로 하고 있는 주립대학적 특수성에서 연유한다는 풀이가 대체로 틀리지 않은 설명의 한 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여간에 이 대학의 총 敎職員數는 교수직, 사무원·행정직, 일반직 등을 통틀어서 근 12,000명에 이르고 있으니, 인구가 약 130만명밖에 되지 못하는 뮌헨시로서는 이 대학을 이 도시에서 제일 큰 雇傭主 중의 하나로 손꼽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12,000명의 교직원 중에서 소위 우리의 정·부교수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終身 正敎授(Ordinarius)들의 수는 — 이 분류가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서독의 대학교수직이 우리와는 다른 체제와 자격으로 특징지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 약 900명 선에 이르고 있고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교수·연구직의 要員數는 근 4,000명을 헤아리고 있다. 따라서 학생 대 교수 비율은 약 10:1로 나타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야별로 특유한 相關關係가 개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관계관들은 간주하고 있는가 하면 바야흐로

80년대의 뮌헨대학은 이제 大衆化時代로 접어들었다고도 평가한다. 그리하여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과중한 교수부담, 태부족의 시설지원·동미흡한 여건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음은 오늘날의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難題로 판단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뮌헨대학의 敎育課程은 약 70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학위과정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첫째로 우리들의 학사·석사학위를 연계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Diplom이나 M.A.(Magister Artium)를 취득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중등교사 지망생들이 목표하는 Staats-examen(국가교사)의 합격여부로 專攻卒業을 마무리하는 방법(교육공무원적 성격의 교사자격은 졸업을 위한 1차 국가시험과, 졸업 후 2년간의 試補기간이 지나간 다음 다시 응시해야만 하는 2차 국가시험에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正敎師 資格證의 형태로 부여되고 있다. 이는 비단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法科系統의 판·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 취득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경로를 밟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대부분 상기한 방법으로의 일차적 관문을 통과한 후에 해당 전공분야의 博士學位 취득을 지향하는 아카데미한 과정으로 미별시킬 수 있다. 물론 그전에는 대학에서 곧바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일이 다반사로 되어 있었으나 요즈음은 미국식 제도를 닮았음인지, 석사과정 후의 박사과정으로 단계화되어 가는 추세가 지배적이다.

특기할 일로서 서독에는 주지하다시피 연방정부 산하에 중앙행정청인 文敎部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는 언제나 주정부 고유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얼마간의 獨自性을 매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적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독의 모든 대학들은 예외 없이 주립대학으로서의 公立性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우리와는 다르다. 다만 더무니 없는 변형이나 무모한 자율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機構로서 「서독대학총장 협의회」(Westdeutsche Rektorenkonferenz)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기서는 서로의 異見들을 조정하고 건설적 행



동지침들을 마련하여 교육과 연구에 효율성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行政的 차원에서는 각 주정부의 문교행정 주관부처인 문부성(Kultusministerium) 장관들의 연합체로서 「상설 주문부성 장관회의」(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교행정적 政策調整機能을 연방적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는 어디까지나 각 주정부 所管事項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실천적 방향은 각 주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목표에 상치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언제나 보편 타당성을 지향하게 된다.

별도로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教育大學이나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師範大學 따위의 단과대학적 구별이 따로 없게 된 현재의 Bayern 주에서의 교사양성교육은 모든 대학, 모든 전공분야 모든 학과에서 독자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술한 자기 반성적 논란을 거치면서 각 전공분야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학적 專門性에 대한 비중은 목하 점점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국가고시 응시자들을 위한 해당 전공의 教授法 分野가 다양하게 실천적으로 개발되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양성과 훈련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망라된 다채로운 교과과정들의 제공은 원혜대학이 내세울 수 있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니 전통적으로는 60가지 정도에 머물렀던 專攻學科들의 “콤비네이션”이 최근엔 28,000가지나 되는 엄청난 수의 結合可能性으로 확대되었다. 졸업 認定이 한 전공학과만의 조건충족(예컨대 시험합격이나 필요학점 취득 등)으로만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해 서독은 한 가지의 주전공 분야와 두 가지의 부전공 분야에서의 요구조건들(졸업논문이나 필기시험 혹은 구두시험 따위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에만 졸업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학생들의 負擔은 막심해지기 마련이고, 더구나 중등교사 자격시험 등에서도 반드시 전공과 부전공 자격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들의 효과적인

인 “콤비네이션”은 단순히 기계인의 취향에만 좌우되는 임의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중등교육의 現場에서도 역시 한 교사는 두 가지 이상의 전공과목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 서독의 교육현실이다. 예컨대 獨語獨文學(Germanistik)이란 전공분야만 하더라도 현재의 뮌헨대학에서는 ① 이론언어학(Theoretische Linguistik) ② 비교문학(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③ 게르만 언어학(Germanistische Linguistik) ④ 중세 독일어독문학(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des Mittelalters(중세학 : Mediävistik)) ⑤ 근대 독문학(Neuere deutsche Literatur) ⑥ 독일어독문학 교수법(Didaktik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등 6개의 전공부서로 細分化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전공분야 선택과 그 연계가 전공 졸업시험의 종류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는 타분야의 부전공 선택이란 變數에 의해 연쇄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공의 선택과 부전공의 연계 가능성의 폭 넓음이 바로 이 대학으로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게다가 또한 여러 事件의 惡化에도 불구하고 뮌헨대학이 여전히 훌륭한 저명한 교수들의 선망의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이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 Ⅲ. 專門領域과 機構組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적 차원에서 우리와는 다른 전통과 다른 제도에 시행되고 있는 서독의 교육을 우리 입장으로 이해하는 데는 신중함이 요청된다. 특히 대학입학 전까지의 中等教育 연한이 우리보다 1년이나 더 길고 보면 대학 초년생의 교양적 배경이 우리 대학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서독은 소위 “고교졸업”을 증명하는 「아비투어」(Abitur)라는 資格을 따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아비투어」 자격증을 딴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을 인정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역시 需要와 供給의 일반원칙에 따라 일부 특정한 학부(의학부 같은 경우)의 입학은 특정한 選拔基準(예컨대 「아비투어」의 성적 등)에

의거 제한되고 있음은 대학의 大衆化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그러나 이러한 Numerus Clausus 란 이름의 입학제한 조치도 법학부와 같은 경우에 아직도 해당되지 않고 있음은 우리와는 썩 비조적이다).

그리고 또 특기할 일은 대체로 김나지움(Gymnasium)이라고 부르는 대학교 지망생들이 다니는 9년제 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2년 동안은 「자유선택 수강과정」(Kollegstufe)이라 명명하여 별도로 대학에서의 專攻授業이나 직업분야를 위한 準備教育을 미리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우리처럼 대학에 들어와서 이수하는 일반 교양교육과 같은 필수과정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입학과 동시에 본격적인 자기 전공에 전념할 수 있게끔 學校가 운영되고 있음도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나의 눈에는 「아비투어」를 마친 사람은 명실상부하게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映像으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어렸든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으로 단계화되어 있지 않은 뮌헨대학의 전문 영역별 전공분야(우리의 단과대학에 해당)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이름의 총 20개 학부로 나누어진다.

- 01 가톨릭 신학부(Faculty of Catholic Theology)
- 02 개신교 신학부(Faculty of Protestant Theology)
- 03 법학부(Faculty of Law: Law School)
- 04 경영학부(Facul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School)
- 05 국민 경제학부(Faculty of Economics and Government)
- 06 임학부(Faculty of Forestry)
- 07 의학부(Faculty of Medicine: Medical School)
- 08 수의학부(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 09 역사·예술사학부(Faculty of History and Art History)
- 10 철학·과학철학·통계학부(Faculty of Phi-

losophy, Philosophy of Science and Statistics)

- 11 심리·교육학부(Faculty of Psychology and Education)
- 12 인류학·근동 문화권 어문학·극동 문화권 어문학 및 슬라브 문화권 어문학부(Faculty of Anthropology, Languages and Literatures of Near Eastern, Far Eastern and Slavic Cultures)
- 13 어문학부 I (주로 고대문화권·영어권·로만어권, Faculty of Languages and Literatures I; mainly Classics, English and Romance Studies)
- 14 어문학부 II (주로 독어권, Faculty of Languages and Literatures II; mainly German)
- 15 사회·정치학부(Faculty of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 16 수학부(Faculty of Mathematics)
- 17 물리학부(Faculty of Physics)
- 18 화학·약학부(Faculty of Chemistry and Pharmacy)
- 19 생물학부(Faculty of Biology)
- 20 지리학부(Faculty of Geology)

이상의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뮌헨 대학에서는 藝能系와 體能系 및 工學·技術系가 별도로 분리되어 따로 음악대학(Musikhochschule), 예술대학(Akademie der Künste),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등의 조직체로서 독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본래의 학문적, 이론적 特殊性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뮌헨대학의 각 학부는 여러 개의 학과들로 나누어져 각 학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어독문학처럼 다시금 세분화되어 전공의 特殊分野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學科(department)들은 총 160개에 이르고 있고 대학병원(병석수는 총 3,000 석)과 수의과병원도 대학에 소속되고 있다. 이밖에 핵물리학 같은 대규모 汎學問的 분야를 위한 실험실이나 원자로 같은 시설물의 운영이나 관리는 뮌헨 공과대학과의 협력하에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나의 전공과 관련되는 서독의 국어국문학과 運營實態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의 자기 전공에 대한 놀랄 만한 관심의 밀도였다. 독어독문학과 1학년 학생수는 무려 4,000 명을 헤아렸고 밤 8~9 시까지도 불 밝힌 강의실에서 진지하게 세미나 등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그 학과 전속도서관은 밤 10 시까지도 꼬박 문을 열게 했던 당국의 배려였었다. 과연 학문의 역사가 길고 研究對象의 사회적 관련성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채도하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國語國文學에 대한 관심이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두고 두고 반성해 보게 된다. 아뭏든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국어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의 독어독문학은 특히 '60년대 후반부에 확산된 「학생운동」의 비판적 공격 목표가 된 바 있었고, '70년대를 통해서 심도 있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 학문의 理論과 實態는 이제 분별 있는 비판의식과 투철한 자기 반성으로 무장된 인간의 해방적 未來像을 가늠하는 방향으로 추주되고 있음에 나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는 또 한 가지 이 대학의 機構組織에 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대학조직상의 핵심체로서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의장단(Präsidentalkollegium)은 총장(Präsident)과 3명의 부총장(Vizepräsident) 및 1명의 사무국장(Kanzler: Head of the administration)으로 구성되는 바, 총장은 4년, 부총장은 2년 임기로 각 이해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총회(Versammlung)에서 민주적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決議機關인 평의회(Senat)는 총 22명의 투표권을 가진 평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의장단과 각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12명의 정교수들과 아직 정교수가 안 된 교수요원 대표 3명(조교도 포함될 수 있음), 학생대표 1명, 사무직 대표 1명으로서 任期는 2년으로(단, 학생의 임기는 1년) 되어 있다.<sup>1)</sup> 그리고 총 62명의 투표권자를 포함하고 있는 總會는 의장단 5명, 정교수만 36명, 정교수 이하의 교수요원단 12

명, 학생대표 5명, 사무직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역시 2년의 임기를 갖는다(단 학생은 1년).

이러한 대학의 기구조직에서 우리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局面은 대학과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의 議決過程에 사무직 대표와 학생대표들이 비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대학이란 조직체가 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사무직이란 세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사결정 과정이 어디까지나 대의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폭도할 때, 대학의 自律과 民主化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거론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또 한번 놀랐던 것이다.

#### IV. 批判의 수용과 自己反省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민주적 機構組織과 學校運營은 물론 저절로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60년대 하반기에 서독 政界에서 오랫동안 야당으로서 정치적 강령의 실현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민당(SPD)이 급기야 기민·기사당(CDU/CSU)과 대연정(大聯政 Große Koalition)에 돌입함으로써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야당이 부재하는 현실의 대두와 철저한 자기반성 운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다. 政治版圖가 갑자기 이렇게 변천되었을 때 사민당의 정치적 이념에 동조하고 있었던 세력들, 특히 의식이 강한 학생 단체들(예컨대 SDS 등)을 주축으로 하여 소위 「원외야당」(APO) 세력이 형성되었음은 서독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빚어진 歸結이었다. 이 세력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기류 속에서(예컨대 월남전쟁, 중공의 문화혁명 등) 기성사회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은폐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盲點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좌익」(Neue Linke)의 기치를 내건 學生運動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상불 이러한 개혁 세력의 파문은 사회 곳곳에 밀어닥쳐와, 이를테면 학교라는 기존체제(Establishment)내에서도 철저한 改革波動은 자기 반성 작업과 어우러져 물밀듯이 파급되기에 이르렀으니 급기야는 갱신적, 자기변혁적 결실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결실의 하나가 바로 학생 집단의 의미 있는 대학운영 참여란 형태로 제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비판세력의 지배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빚어낸 跋行的 斷想도 없진 않았지만, 역시 서독 대학들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여물어진 알찬 지성은 끝내 모든 문제들을 합리적·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주의적 조직체로서 손색 없이 대학은 지금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함은 비단 나 혼자만의 臆測은 아닐 것이다. \*

#### <註>

- 1) 교수요원 대표, 학생 대표, 사무직 대표들은 정족수 여하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가 달라질 수 있고 1981년말부터 시행된 새 학칙에 따라 각 학부의 학장들도 투표권 없이 평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Die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안에서, München, 1983, p. 1.

※ 許昌雲 教授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西獨 뮌헨大學에서 碩·博士學位를 취득하였으며, 두 차례(1976~77年, 1980~81年)에 걸쳐 同大學에서 研究教授로 在職한 바 있다.